

■ 28일 입신(入神) 축하연 가진 본보 바둑해설위원 오규철 9단



# 광주 '바둑대부' 꿈☆은 계속된다

바둑 기사들에게는 평생 가슴에 새겨지는 두 가지 기쁨이 있다.

프로 입단이 그 첫째요, 9단 승단이 두번째다. 그러나 신의 반열에 들어가는 '입신(入神·9단)'은 글자 그대로 범부들에게는 평생 오르지 못할 '산'에 그칠 수 있다.

광주 '바둑대부' 오규철(54) 9단이 28일 광주 기우회원과 동료 기사들이 마련한 입신 기념 축하연을 가졌다. 조 9단은 지난해 11월 9단으로 승단했다.

“조현현(영암), 김인(강진), 이세돌(신안) 등 한국과 세계 바둑을 대표하는 기사들을 배출한 이 지역엔 변변한 바둑대회 하나 없다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 34살 늦깎이 프로 입문... 20년만의 장차상

#### 쟁쟁한 후배들 제치고 올 바둑리그 본선행

오 9단은 34살 늦깎이로 프로에 입문(83년)한 뒤 20년 만에 가장 큰 장차상을 받았지만 의외로 무겁게 입을 뗐다. 지역에서 바둑 대회 유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그는 고등학교 때 바둑돌을 잡은 데다 지역 기사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불과 2, 3년 때 당대 '거함' 조현현 9단과 패권을 다했다. 88년 왕위전, 89년 패왕전 준우승이 그 결과다.

특히 올 한국바둑리그 예선에서 쟁쟁한 후배들을 제치고 리그 본선에 합류할 정도로 기복없는 실력과 관록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야 후배들이 따릅니다. 바둑리그 예선 출전도 그런 의의였습니다. 아쉽게도 고향 팀이 아닌 부산 파크랜드 소속으로 한국리그를 치르지만 최선을 다해 팀우승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34살에 프로에 입문한 그는 조현현 9단과 혈투를 벌이면서



오규철 9단은 28일 본보와 인터뷰하는 내내 바둑돌을 만졌다. 돌을 만지지 않으면 이야기조차 풀이갈 수 없는 듯 말리는 바둑 인생이다.

바빠프게 바둑을 배웠다. 물론 가장 인상 깊은 승부로도 조현

현 9단과의 대국을 끝낸다.

“함께 대국할 기사조차 없었던 광주 '촌놈'에게 불과 9살에 일본에서 유학할 정도로 탄탄한 내공을 쌓은 조씨는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위전과 패왕전에서 조 9단에게 패한 뒤 뼈를 깎는 바둑 공부를 거듭했습니다.”

그는 '천재소년' 이세돌의 길라잡이였으며, 최근 한국 리그 예선전에서 '할녀' 루이 9단을 꺾은 김지석 3단(17)과 신에 김수용 3단(16)을 길라잡이 주인공이다.

“평소 친분이 있던 이세돌(당시 6세)의 아버지가 부탁해 테스트 했을 때 걸맞았을 겁니다. 당장 서울에서 바둑을 가르칠 것을 권했습니다. 지금도 영재를 보면 가슴이 설칩니다.”

### 이세돌 길라잡이... 지역대회 없어 아쉬워

#### '혼신' 다하는 승부사... 타이틀 홀더가 꿈

“정글이나 님 없는 바둑판에서 20년 동안 싸우면 그의 승부철학은 '혼신'이다.

“대국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합니다.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야 진정한 승부를 펼칠 수 있습니다.”

“정글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그가 후배기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없을까?

“바둑이 직업이 됐기 때문에 프로기사들이 오직 바둑만 보는데 개인 소양도 기르고, 폭넓은 대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둑 보급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오 9단의 올 목표는 우승이다. 그는 “이제 입신도 했고 거머야할 관료를 다 지난 만큼 타이틀 홀더가 되는 것이 꿈이라 하면 꿈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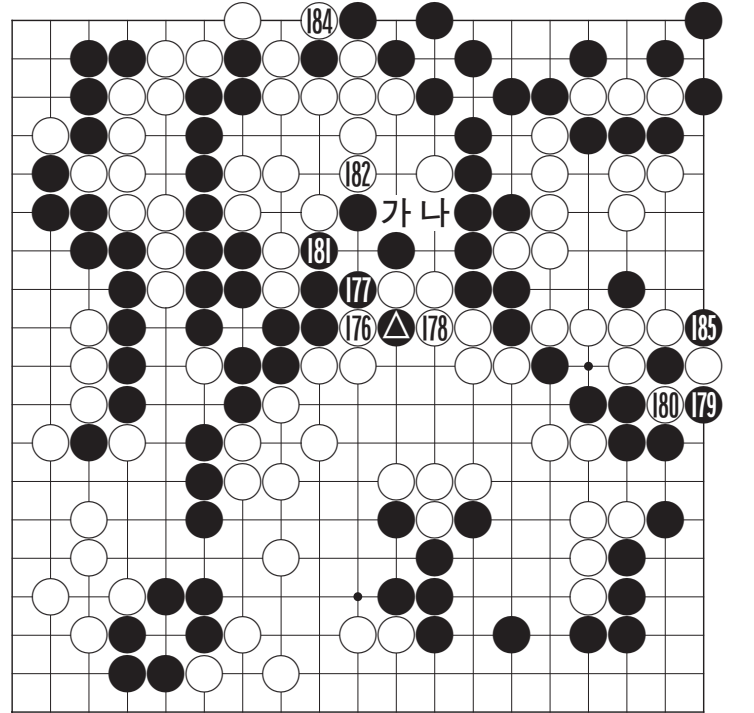


### 마무리 펀치

결승전 제 12보(176~185)

白 이창호 9단  
<엠편>

黑 조현승 8단  
<타이점>



신예기사들은 한번 손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말리가 어렵다. 조현승 8단이 전보에서 묘착을 두어 승기를 잡더니 계속해서 흑 176을 붙여 이창호 9단을 몰아세우고 있다.

이 때 백이 178로 물러서면 안전하지만 전보에서 치명상을 입은 마당에 다시 전수 세 집을 당하면 가만히 앉아서 지게 된다. 그래서 176으로 일단 한 점을 잡고 버텨 봤으나 177에 돌이 놓이자 위쪽 백 대마의 사활이 문제가 되었다.

조 8단은 한 걸음 나아가 우변 179의 곳에 두어 패로 버티고 나섰다. 그런 다음 팻감으로 181의 곳에 두어 상대의 눈을 없애가며 백 대마를 공격하고 있다. 백은 182로 받을 수밖에 없다.

백이 이 수를 두지 않으면 흑이 184의 곳에 이어 이후 백 '가', 흑 '나'로 천지대패가 되고 만다. 이창호 9단도 이 정도 수 좁아야 흰히 내다보고 있을 터지만 이번 대국이 단체전인데다 팀의 우승까지 걸려 있는 결승전인 만큼 결사적으로 버티고 있다.

결국 흑이 183으로 우변 패를 떼내자 최하 양패가 되고 말았다. 오른쪽 패는 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백은 184로 대마를 살려 보더니 흑이 185로 우변을 때내자 결할 수 없었던 지선 선하게 돌을 던졌다.

조 8단의 빛나는 마무리 펀치였던 것이다. 흑 183은 패 따님.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 한·중·일 바둑 '기력' 대충돌

### 내달 1~3일 일본서 '쇼바둑대항전'... 한국 2연패 도전

한국이 아시아 바둑대항전 2연패에 나선다.

한·중·일 대만 4개국이 출전하는 제5회 CSK배 아시아 바둑대항전이 5월1일부터 3일까지 일본 벵부(別府)에서 열린다.

한국은 1회 대회 우승 이후 3년 만에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일본 기전인 이 대회에서 한국은 국내 톱랭커인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최철한 9단, 박영훈 9단, 고근래 4단 등 타이틀 홀더들이 출전한다. 1인당 3국을 뚫는다.

한국과 국제 무대에서 힘겨투기를 하고 있는 중국도 호화진영으로 맞선다. 창하오 9단, 당웨이 8단, 구리 7단, 룡제 7단, 셰러 6단 등 중국 대표기사들이다.

일본에서는 요다 노리모토 9단, 유키 9단, 다카오 신지 9단, 아마사타 게이코 9단, 고노리 8단 등 출사표를 던졌다.

한·중·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대만은 진시영 5단, 반선기 7단 등 5명이 출전한다.

한·중·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대만은 진시영 5단, 반선기 7단 등 5명이 출전한다.

한·중·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대만은 진시영 5단, 반선기 7단 등 5명이 출전한다.

한·중·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대만은 진시영 5단, 반선기 7단 등 5명이 출전한다.

Movie advertisements for Mega Box and Cinema, including titles like '만반의 기쁨이' and '아이스에이지2(자막)'. Includes showtimes and pr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엘지공인중개사' (LGI Real Estate Agent) featuring properties in various districts like Hwasung and Inche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유성공인중개사' (Yuseong Real Estate Agent) featuring a large property for sale in Kwangju.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C타워(주)' (LC Tower Co.) featuring a high-rise apartment complex.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Real Estate Agent) featuring properties in Kwangju and Gyeongju.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21세기부동산개발(주)' (21st Century Real Estate Development Co.) featuring new developments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심일부동산' (Daeyeon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properties.